



空士總同窓會報

發行人：朴 雄 鎮
編輯人：姜 容 求
印刷人：朴 炳 萬

(住所)：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新吉 7洞 1178番地 (郵便)：150-057 (電話)：02-845-1090 (FAX)：02-845-1091 (非賣品)

회보 인덱스

- ㉒ 2 • 正 論
• 空士校長時節의 回顧
- ㉒ 3 • 同窓會에 關한 消息들
- ㉒ 4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당위성
- ㉒ 5 • 空士總同窓會 結成小考
- ㉒ 6 • 한국의 항공 우주 개발
- ㉒ 7 • 時 論
• 星武臺 斷想
- ㉒ 9 • 國防과학기술의 現代化 방향
- ㉒ 10 • 氣와 健康
- ㉒ 11 • 삶의 지혜
• 酒 頌
• 명청하지 말고 오래 삽시다

新年祝詩

다시 하늘에

하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눈을 뜨면 눈 속에서
손이 닿는 언저리에서
정갈한 마음의 집으로
떠 있고 싶어지는 것뿐이다.

하늘에 살고 싶어 날개를 퍼지만
더러는 비바람에 꺾이고
쏟솔하고 차가운
지나간 일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시냇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이
그렇게 가고마는 世事 속에서도
울컥울컥 가슴질하던
민족통일의 숙원이
보일듯한 신기루로 피어오르고 있지 않는가

새아침에는 가장 낮은 하늘 한가운데
가장 깊은 나라 사랑을 심어보자
淸原벌에서 뻗어나온 힘찬 기운이
그림자가 아닌 우리들의 전통과 역사를
출렁출렁 흐르는 강이 되도록
높푸른 조국의 하늘에 다시 곧
空士人만이 소중히 지킬 수 있는
빛나는 명예를 면면히 지켜 나아가자



박 응 진(공사 4기)
· 총동창회 회장
· 시 인

星武臺

유명한 프랑스 농민화가였던 밀레가 그린 晩鐘이라는 그림이 있다. 원래 70달러밖에 되지 않는 물감과 종이를 들여서 그린 그림이다. 나중에 어느 英國人이 12만 5천달러에 사갔다. 얼마 후 프랑스 사람들은 이 名畫를 본국으로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에서 15만달러를 주고 사다가 루브르 미술관에 걸어 놓았다.

밀레의 만종은 어느 젊은 부부가 하루종일 담뭍혀 일하다가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올 때에 삽과 괭이를 놓고 두손모아 기도드리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다. 이 명화 속에는 세 가지 神聖함이 들어 있다. 첫째는 家庭의 神聖함이고, 둘째는 노동의 신성함이고, 셋째는 宗教의 신성함이다. 家庭이야말로 모든 人間社會

가토록 무서운 시련과 역경에서도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비록 나라가 없어도 信仰으로 뭉쳐진 가정의 있었기 때문이고, 종교적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

정, 넷째 사회와 잘 조화되는 가정이라 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잘 적용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고 했다.

家庭教育이不在한 우리는 「友悋을 가지고 자라는 아이는 사랑을 배우고, 正直하게 살아가는 아이는 眞實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公平한 精神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는 正義를 배운다. 그리고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는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는 不安을 배우며,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아이는 저주를 배운다」는 어느 익명의 작가의 말을 家庭教育에 參考하여 子女를 教育한다면 앞으로 훌륭한 人材가 많이 배출될 것이다.

家 庭 論

의 기본단위요 질서이다. 그런데 共產主義社會에는 사람의 질서가 없기 때문에 가정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산국가들이 파멸돼 가고 있다.

지난 2천년 동안 유대민족이

다. 女性家庭學者 버지니아 사타리아는 가정이 지니는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을 첫째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가정, 둘째 서로간의 뜻이 통하는 가정, 셋째 규칙적이고 질서가 있는 가

正論

들의 전투조직의 역사를 남쫓던 결성 이전인 '84년 시민군 출신의 선배 전사를 주축으로

우리는 安保死角地帶에 살고 있다

요즘 북한 잠수함으로 침투한 무장공비 소탕작전이 근한달째 시행되고 있지만 잔당 1명을 못잡고 있다.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북한의 배은망덕은 전범을 받을 것이다. 보복을 하면 우리가 해야지 무슨 업치로 백배 천배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는 그들의 작태는 미친 자들이 아니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8·15를 기해 한총련의 폭력시위는 연세대를 폐허로 만들고 9월만에 진압되는 과정에서 4백 44명이 구속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연세대 점검 농성과 폭력시위의 전위대로 알려진 남총련 소속 학생들은 평상시 MT나 학교 야산 등에서 전투대열과 쇠파이프 사용법을 훈련해 왔다고 한다.

연세대 시위를 주도한 것은 남총련 산하 민족해방군이며 호남지역 21개 대학에 별도의 이름을 가진 부대를 두고 조직원은 총 8백 여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남대 민족해방군은 「오월대」라는 이름 아래 진달래, 비호, 죽창, 불꽃 등 4개 중대를 두고 각 중대마다 10~30명의 소대원을 보유 총 2백명의 전력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대도 「녹두부대」라는 명칭 아래 자주군, 민주군, 통일군의 3개 중대로 조직됐으며 이밖에 호남대의 「전사대」, 광주대의 「한별대」, 광주교육대의 「백두대」, 목포전문대의 「봉화대」 등 각 대학별로 20~50명의 민족해방군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중대장, 소대장, 소대원 등 현역을 활발케 하는 직위를 명백히 구분 중대장은 시위준비 과정과 시위현장의 작전을 지휘하고 소대장은 전체 규율과 전술개발, 훈련, 교육, 홍보의 4가지 기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위 외에도 정치선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자신

전남대에서 「전조」(前組)라는 조직이 발족된 후 '88년부터 본격적인 전투조직으로 활동해 왔다는 것이다.

민족해방군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한총련은 지난 '92년 1월에 결성된 후 인공기를 내걸어 이적성 학생단체로 기록되고 있다.

지난번 국방장관은 국회보고에서 군대에도 6천 여명의 좌익세력이 존재하고 있어 특별 감시를 하고 있다고 했고 「간수」라는 이름으로 아랍국적으로 모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면서 12년간이나 간첩활동을 한 정수일(鄭守一)은 자기와 같은 고정 간첩이 수백명이 있다고 했으며 전 월남 공사였다가 현재는 북한 연구가인 이대용(李大鎔)씨는 친북세력이 4만2천명이 있다고 발표했다.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진리를 탐구하는 삼아탐 대학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에 친북 좌익세력이 득비섯처럼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우리 사회 일각에 얼마나 많은 오열본자가 있을까?

이렇듯 우리는 안보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보안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싸움을 하고 있으니 심히 한심한 일이다. 법개정 전에는 이적단체 구성과 좌익 사범의 적발 건수가 177건이었는데 개정 후 45건으로 줄었으며 간첩 체포 건수도 3분의 1로 감소했다.

지방대학 모 교수는 「김일성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란 내용의 간행물을 4차레나 배포하고 다녀도 수사권이 없어 방관할 수밖에 없고 간첩 혐의자 또는 좌익 혐의자들이 「나를 지키고 적을 공격하라」는 신문 투쟁지침을 만들어 독비권을 고수하므로 수사에 애로가 많다고 한다.

반국가 사범을 색출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하자고 하는데 여저 여야가 있을 수 있

(4면에 계속)

空士校長 時節의 回顧

平凡 속에 眞理가 있다는 말과 같이 출필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는 것이 못내 허무한 것 같아 지난날 30餘回 星霜의 空軍 生活 中榮光스러웠고 긍지를 느끼게 했던 空士 校長을 수행하면서 함께 일했던 參謀 指揮官 그리고 生徒들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리라 믿고 그 시절을 回顧해 본다.



全 春 雨(공사 6기) · 전 공사교장 · 예 소장

10여년 전 서울 大方洞 성무대 요람에서 침주 남쪽 청원군 남일면 소재 쌍수리, 산수가 수려한 곳. 현공사 요람으로 이동한 일년 뒤에 교장으로 부임되었다. 個人으로는 무한한 영광의 자리요 보람의 직책이었지만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공군의 정예요원 양성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 것은 사실이다.

현재의 時代狀況이나 분위기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보지만 새로운 요람지 건설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뜻도 컸으며 최고의 교육환경에서 우수한 정규사관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였다.

큰 행사로 35기생 졸업식을 비롯한 空士 4기생의 30주년 기념행사, 三士 體育大會에서의 축구 우승으로 한 종합우승, 무동력 항공기 대회 등 수많은 행사를 그리고 청원기지로의 이동으로 공사에 예측된 초중 비행 과정 수행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주마등처럼 생각난다.

그러나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唯一하게 一級行사가 매년 이루어지는 卒業行事이다.

校長 업무를 수행하면서 터득한 것은 日本의 第2次大戦 당시 航空職의 敗因을 되돌아 보면 空軍力 不足 그 중에서도 空軍 사 양성의 있어서 이미 日本은 失敗의 길을 걸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美空軍은 敵機를 5台山 격추시키면 「에이스」로 불리면서 영웅시 하고 美本土로 들어가 조종사 양성의 교관으로 활용하여 이들은 서로 전술전기를 연구하여 전술교범을 만들어 교육에 활용했으나 일본의 「에이스」들은 30~40대를 격추시켜도 전장을 떠날 수 없이 전투임무를 계속 참전했기에 운이 나쁘면 아주 신물내기 젊은 미조종사들

에게 격추되어 결국 일본 「에이스」 파일럿은 갑소일로인 반면 美空軍 「에이스」 조종사는 기하급수적으로 增加하게 되었다.

조종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던 미 조종관들은 神格 존재이기에 조종학생들의 학구열을 높여 주었다. 이외에도 지휘체제면에서 중적인 지휘체제 뿐이었고 획적인 협조, 다시 말하면 인접부대의 협조가 거의 안되었었다.

당시 일본군은 비행장 하나 건설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지만 미국은 볼도저로 밀어 재치고 PSP란 짧은 전투기가 이룩하는 비행장이 1개월만에 건설되었다.

전쟁을 주도하고 계획하며 전술을 개발하고 고가·고성능·고정밀·고과피력을 지닌 공중무기, 그리고 장비를 다루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도의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전승의 첩경인 것이다.

무엇보다 생각나는 것은 空士 發展中長期計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우수 자질의 교수진이지만 행정분야를 직접 담당케 하여 계획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되어야 했다. 그 중요 계획을 회상해 보면 우수 자질의 생도모집, 우수 교수 확보, 항공공학분야의 최고수준 최고의 교육환경 및 시설유지 보수, 三士 體戰勝利計劃 등을 골자로 매년 수정 보안토록 했다.

최근에 확인 결과 우수교수

즉 박사학위 소지자 수는 그 당

(6면에 계속)

idc(주)이이.다.시.텍

世界 3大 Supermini Computer Maker 中の 하나인 美國 Data General 社의 Eclipse MV 및 Aviion System(Unix Machine)의 韓國 代理店으로

- 1. 大學, 綜合情報 System(ATIS) - 學事管理 - 行政管理 - 圖書文獻管理를 支援하며
- 2. 大學 諸證明 無人自動發給機(特許 第076630號 所有임) 製作支援
- 3. 病院情報綜合 System(HITS)의 開發支援 等

Computer 關聯 Hardware, Software를 支援하고 있습니다.

代表理事 吳 世 一 (空士 2期)

本社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59-13 IDC B/D
TEL : (02) 424-1261 / 6 FAX : (02) 424-1267

同窓會에 關한 消息들

會費納入同門들

1. 任員會費

- △ 朴 鍾 權 (9期) 20만원
- △ 慎 都 範 (9期) 10만원
- △ 崔 一 永 (9期) 10만원
- △ 裴 基 俊 (12期) 10만원
- △ 全 大 禹 (12期) 10만원
- △ 崔 大 植 (12期) 10만원

- △ 權 赫 達 (9期) 10만원
- △ 金 明 洙 (9期) 10만원
- △ 朴 昌 吉 (12期) 10만원
- △ 鄭 敏 男 (12期) 10만원

2. 平生會費

- △ 白 慶 煥 (1期) 10만원
- △ 金 慶 福 (3期) 10만원
- △ 沈 璋 燮 (3期) 10만원
- △ 李 明 完 (3期) 10만원
- △ 李 慶 赫 (3期) 10만원
- △ 曹 博 賢 (3期) 10만원
- △ 崔 恒 基 (3期) 10만원
- △ 張 東 俊 (3期) 10만원
- △ 梁 承 文 (4期) 10만원
- △ 朴 雄 鎮 (4期) 10만원
- △ 成 甫 慶 (5期) 10만원
- △ 崔 泓 潯 (5期) 10만원
- △ 李 鄭 植 (5期) 10만원
- △ 鄭 在 洙 (5期) 10만원
- △ 姜 容 求 (6期) 10만원
- △ 李 潤 雨 (6期) 10만원
- △ 金 道 植 (8期) 10만원
- △ 文 英 福 (9期) 10만원
- △ 金 完 洙 (10期) 10만원
- △ 朴 根 燁 (10期) 10만원
- △ 裴 基 俊 (12期) 10만원
- △ 李 鍾 大 (13期) 10만원

- △ 高 承 萬 (3期) 10만원
- △ 金 仁 基 (3期) 10만원
- △ 嚴 龍 植 (3期) 10만원
- △ 李 仁 行 (3期) 10만원
- △ 李 鍾 學 (3期) 10만원
- △ 趙 召 夏 (3期) 10만원
- △ 金 震 燮 (3期) 10만원
- △ 趙 慶 來 (4期) 10만원
- △ 李 時 雨 (4期) 10만원
- △ 全 潤 壽 (5期) 10만원
- △ 李 炳 稷 (5期) 10만원
- △ 安 錫 麒 (5期) 10만원
- △ 張 箕 鉉 (5期) 10만원
- △ 李 春 雨 (6期) 10만원
- △ 李 游 國 (6期) 10만원
- △ 金 東 喆 (8期) 10만원
- △ 鄭 松 榮 (8期) 10만원
- △ 慎 都 範 (9期) 10만원
- △ 金 潤 珠 (10期) 10만원
- △ 李 泰 植 (11期) 10만원
- △ 朴 春 澤 (12期) 10만원

倫리가不在한 狀況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價値觀의 혼돈으로 예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적 孝心과 道德心이 몰락위기에 직면하여 生命의 존엄성과 上下의 階級질서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歷史와 傳統을 자랑하는 空士들 나와 淸춘을 바쳐 조국의 하늘을 지키다가 名譽로운 전역과 함께 社會 各分野에서 나름대로 생활하시는 同門들 家庭이나 道德性 回復이라는 측면에서 家訓 補給運動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0余名이 申請해서 명성높은 琴藝家 金芳夫 先生의 名筆로 써보내 주었습니다. 아직도 家訓이 必要하신 同門들께서는 가훈을 만들어 보내주시면 李大永 同門(5期)의 名筆로 써보내 주겠습니다.

空軍短信

空軍에서는 21世紀 航空宇宙産業 先進化 進入의 기틀을 구축하고 軍民兩利의 對民防衛産業 製品을 紹介하며 세계 優秀업체와의 技術 교류 및 협력의 場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 에어쇼 '96」 行事를 지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둬오써 한차원 높은 空軍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개국 200여 업체가 참가했으며 관람객만도 백만명이 훨씬 넘었다.

朴雄鎮 同門 詩碑 建立



詩碑에 새긴 詩

꿈 한자락

허훈한 꿈 한자락
기대하게 해 놓고
어둠을 사취역은 별빛은
안개속에서 서성거린다.

행복이 오려해도
길이 없어 못가는데
이슬박을 훑고있는
한세월의 숙덕이
면 북빛 그리움으로 문진다.

아-
시간의 겹치듯이
아직도 나를 밝고 힘있게
기어 왔기 때문입니다.

總同窓會員 배지 製作配布

歷史와 傳統을 자랑하는 大韓民國 空軍士官學校의 卒業生으로 名譽와 自負心을 갖고 社會活動에 도움이 되도록 배지 2천개를 제작, 期別로 配布하였으니 몇몇하고 자랑스러운 자신의 뿌리를 나타내도록 언제나 달고 다니기 바랍니다.

家訓 씨주기 運動 推進

物質文明이 極도로 발달한 現代社會는 精神文化가 쇠퇴하여 道德



南星企業株式會社

NAMSUNG TRADERS CO., LTD.

(韓國貿易協會 및 貿易代理店協會 登錄業體)

HANDLING ITEMS

- TV/ VIDEO : SATELLITE COMMUNICATIONS SYS. (DBS-DTH E/S, D-SNG, CODEC), OPTICAL VIDEO/AUDIO /DATA TRANSMISSION SYS. (LASER, INFRA-RED), COMPUTER-GRAPHICS PAINTING & ANIMATION SYS., DIGITAL VIDEO/AUDIO DISK RECORDING & STORAGING SYS. (VDR, RAID DISK ARRAY), VIDEO EDITING & PRODUCTION SWITCHING SYS., VARIOUS VIDEO PRODUCTION SYS.
- FILM LAB : COLOR FILM PROCESSING & PRINTING AND SPECIAL EFFECTS SYSTEM.
- AVIATION : AIRCRAFTS, A/C ENGINES & GROUND HANDLING SYS., A/C ENGINE OVERHAULS, AND AIRBORNE AVIONICS SYS.

代表理事·社長 李 仁 行 (空士 3期)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5-32(무해빌딩 4층)

TEL : (02) 322-1986~9

FAX : (02) 322-1918

E-MAIL : namsung@bora.dacom.co.kr



강 옹 구(공사 6기)

- 공사 총동창회 사무총장
- 평동자문위원

1. 머리 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나 국가 안보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시 해 온 까닭은 안보가 없으면 국가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분단된 지 반세기가 넘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안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통일은 환상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국민들의 통일안보관이

국토 정치 민족적 3단계 분단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통일

확고히 확립되지 않았을 뿐더러 안보에 대한 무관심과 식상으로 우리체제를 전복하고 공산화를 시도하려는 불순한 무리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돋아나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 처럼 바라보고만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분단의 역사성과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의 당위성을 천명하는 바이다.

2. 분단의 배경

우리나라의 분단은 국토적, 정치적 그리고 민족적 차원의 3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첫째, 국토의 분단 국토의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전후처리과정에서 미·소가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점령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소련은 미국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자 일본의 조기 항복을 예상하고 8월 8일 일방적인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 전역에 이어 한반도에 침공하기 시작했다.

일본 오키나와 근해에 머무르고 있던 미군은 소련군의 급박한 남하와 일본군의 조기 항복이라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일본군의 항복 접수와 무장해제를 위한 연합군의 지역 분담의 지침을 확정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작전계획을 본 스틸과 러스크 두 대령이 38도선을 경계로 한 미·소 양국의 분할점령이 이미 남하하고 있는 소련군에 대응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건의를 올렸고 미국정부에 의해 이 계획이 채택되어 영,

중, 소 3국의 통의를 받아 한반도 제1호로 맥아더 사령부에 하달되므로 우리의 분단은 기본적으로 강대국 정치의 산물로서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응한 미국의 대응전략에서 빚어진 국제형 분단인 것이다.

둘째, 정치적 분단 국토의 분단은 우리민족의 역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국제형 분단으로 다시 통일을 시키기 위해 UN총회는 1947년 11월 14일 가부를 투표한 결과 112대 43으로 채택되었다.

UN총회의 결정에 따라 UN한국임시위원회가 구성되고 1948년 1월 12일 서울에 입성하여 활동하기 시작했으나 38선 이북에서는 소련군이 활동을 북한에서 하지 못하게 하여 할 수 없이 남한에서만 임무를 수행 중인 5월 10일 총선을 실시 198명의 제헌국회의원을 선출했다.

그리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5월 31일 소집하고 이승만 박사를 국회의장으로 선출 이어 7월 12일에 헌법

을 제정하고 7월 17일에 공포하였으며 7월 20일에 국외간첩선거를 통해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한 뒤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하였다. 이에 당황한 김일성은 1948년 9월 9일 평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이 땅에는 정치적 분단이 이루어졌다.

셋째, 민족적 분단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은 소련의 사주를 받아 한반도의 적화를 위해 남침을 감행하였다.

이때 북한에 살고 있던 많은 주민들은 공산치하가 싫어서 남쪽으로 피난을 왔고 한편 남쪽에서는 인민군의 침공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미리 피난 못한 저명한 인사들이 공산당에게 끌려가 인민군 후퇴시 북쪽해감으로써 이 땅에는 민족적 분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분단됨으로써 천만 이상가족의 슬픔을 가져왔고 국가발전적 차원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원할하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자원의 분포를 보면 남북이 균형있게 되어 있지 않다.

남쪽에는 농업자원과 인적자원이 많은데 반해 북쪽에는 그러므로 부존 자원이 조금 있다.

예를 들면 천광석의 매장량은 남쪽에는 약 7천여만 톤이 있는데 비해 북쪽에는 39억톤, 도 석탄의 경우 남쪽에는 11억 9천만톤인데 북한에는 160억톤이 매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북쪽의 자원을 남쪽의 인적자원과 기술로 개발했다더라면 엄청나게 발전했을텐데 분단됐기 때문에 자원관리를 못했던 것이다. 다음에 더 큰 상처는 전

統一安保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대안성

통적인 한민족의 분단이 계속됨으로써 두개의 민족으로 화할 가능성이 있게 된 것이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49년동안 독재를 하면서 우리의 전문분화를 말살하고 더

변함없는 북한의 대남적 전략목표 자유 인권 복지가 보장된 통일 민주국가 건설

나가는 자기의 계급이론을 합리화하고 김일성의 절대성을 인민의 주체사상으로 만들어 가는 가운데 언어의 이질화가 왔다.

민족의 혼인 언어가 변한 것이다.

북한에는 우리가 못 알아 듣는 말이 많이 생겨났다.

예를 들면 "김선생! 저녁 먹으라 갑시다"라는 말을 북한에서는 "김동무! 만찬 조직사업하러 갑시다"라고 한다.

저녁은 만찬이고 두사람 이상은 조직이고 밥먹는 것은 혁명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통도 변하고 관습도 변하고 언어가 변함으로써 한 나라 안에 두 민족이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분단에서 불 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지만 오늘날까지 통일이 안된 분단군에 살고있다. 솔직히 말해서 북한 하나만 있으면 왜 그 동안 통일

이 안되었겠는가? 인구가 두배요 국력이 9배나 넘는데... 그러나 그간에는 북한을 지원한 강력한 배후세력인 소련과 중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은 해체되기 전까지만 해도 군사초강국 또 중국은 13억의 인구를 가진 인구초대강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변화는 너무나 크다.

소련은 해체됐고 공산당은 몰락했으며 러시아와는 국교를 맺고 30억불의 차관을 해주었다.

그리고 중국도 많이 변

민족적 좌표의 3단계 통일 통일은 순간 갑자기 닥쳐올 수도

했다.

비록 공산주의를 한다고 하나 경제는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나라와도 외교관계를 맺었고 경제적 협력국이다.

작년에 교역량이 백억불이 넘었고 금년에 목표는 150억불이며 1년의 인적교류도 10만명이 넘는다.

때문에 통일의 장애인 냉전체제의 유물이 없어진 것이다.

국제질서는 개방되고 개혁되어 평화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국내적 여건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통일관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를 가장한 재야권 정치 야권, 학원의 주사파인 한총련, 기업의 노동권들이 부르짖고 있는 통일론은 북한의 공산화 통일론인 고려연방제를 풍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일은 아무렇게나 하는 통일지상론이 아니라 반드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여야 한다

3.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의 당위성

왜 공산주의 적화통일이 되서는 안되는나 하면 공산주의를 가지고는 인류의 평화나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고 공산주의는 인간의 삶을 정상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철학이 아니라 혁명적 철학이고 전투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구조 자체를 비참하게 만들어 왔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만든 어년 사회주의의 특징은 (1) 전체주의적 독재체제 (2) 가부장적 봉건체제 (3) 철저한 관료주의체제 (4) 천의 규율이 작용하는 병용체제이다.

우선 공산주의는 어떠한 모순이 있느냐 하면

첫째, 인간의 가치를 내뿜을 만한 근거가 없다. 둘째, 사랑의 질서가 없다. 다시말하면 사랑의 보급자리요, 행복의 요람인

가정제도를 무시하고 있다. 셋째, 선택의 자유가 없다. 북한은 철저한 계급적 신분사회로 해심계층, 동요계층, 반동계층의 신분으로 분류 사회생활의 모든 기준을 여기에 맞추어 하고 있어 선택의 자유가 없다.

넷째, 사유재산이 없다. 공산주의의 몰락은 경제과단에서 오고 경제실폐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아 일을 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일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현실

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4. 우리의 통일정책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8월 15일 독립기념관에서 광복 제49주년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천명했다.

이것은 종래의 통일정책을 종합하고 우리의 좌표를 분명히 밝히려는 점에서 민족통일의 도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대통령의 통일정책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1) 세계는 이미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하였고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다. 통일을 추진하는 기본철학은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자유없는 민주가 있을 수 없고 민주 없는 진정된 자유와 평화도 있을 수 없다. 때문에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주의적 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2) 통일은 어떻게 권력을 배분하느냐 보다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통일은 계급이나 집단중심의 이념보다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2면 우리에서 계속)

으며 범계정에 담론이 필요인가? 정치권은 하루 빨리 안기부의 수사권을 부활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자기의 천국처럼 날뛰고 있는 간첩과 좌익세력을 뿌리채 뽑아 국가 안보태세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조국통일을 앞당길 수 있으며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編輯室)

提言



孫周鉉(공사1기)
前空士總同窓會長
예비역 준장

이 나라 이 겨레의 아들로 태어나 父兄兄弟와 家庭과 故鄕을 떠나 젊음의 꿈과 情熱을 이룩하고 불태우고자 空軍士官學校에 入校하게 된 榮光을 차지한 우리들이다. 士官學校에서의 教育과 訓練은 고되고 힘들었으나 規律은 매우 嚴格하였으나 우리들의 뜻과 所望은 얼마나 純粹하고 보람찬 것이었던가!

世俗적인 一身의 榮華이나 財物에 對한 欲望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았고 그런 겨레도 없이 오직 榮光로운 空軍士官이 되어 祖國의 하늘에서 所重한 보람을 얻

空士總同窓會結成小考

의 期間을 지나면서 하늘에서 殉國의 勳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挑戰·挑發이 있을 때마다 各各의 分野에서, 또한 매우 苦痛스럽고 어려운 條件下에서 나라와 하늘과 겨레를 지키는데 나름대로의 功勳을 하고 當然한 犧牲도 堪耐하여 왔다. 이러한 同門들의 獻身과 努力이 오늘을 있게 하고 士官學校의 傳統과 歷史를 빛나게 하여가고 있는 過程인 것이며, 꽃을 다 피우지 못하고 사라진 同門들의 犧牲 위에서 우리는 그들이 가져보지 못한 有形·無形의 人間的 기쁨과 幸福을 素朴하나마 享有하고 있는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 않은가?

人生을 經營하는 知識과 方法을 배워주는 마담이 一般 專門大學이며, 士官學校는 나라와 겨레, 즉 우리 땅과 바다와 하늘, 그리고 우리 모두의 家族을 지키는 國家의 干城으로서의 士官을 養成하여 그들의 나라·겨레에 對한 忠誠心과 使命感으로서, 또한 犧牲과 獻身으로 그 所重한 責任을 다하도록 하는 精神을 기르기를 爲한 軍事知識을 가르치는

會의 初期의 發足を 하였었으나 不得已한 事情으로 中斷 或은 해체된 채, 긴 空白期를 지나 近間에 이르러 1기부터 6기까지의 各期生 會長團의 會同議論 끝에, 반드시 우리 總同窓會를 再結成하자는데 뜻이 모아졌다. 특히 2期の 朴載誠 同門의 強力한 推進, 2期の 金相奎, 3期の 崔恒基·沈原燮, 4期の 鄭英奎, 5期の 朴鎔泰, 6期の 全春雨 그리고 7·8·9·10期の 會長들까지 擴大會同을 거듭하여, 비로소 '93年度에 많은 同門들의 聲援·支援으로, 完全한 "無"의 狀態에서 空軍士官學校

主格이 될 수 없고, 一部 同門의 私의 意圖에 依한 設立도 可憐치 않음은 勿論이다.

同窓會는 "별 볼일 없는 것이다"라는 發想은 機會主義의·打算的 期待의 所産일 것이며, 垂直·水平論理에 關한 所見은 時間과 關係에서 判斷할 問題이다.

즉, 오늘날 第1期가 先輩會長·會員이라면 10年後에는 10期가, 30年後에는 30期가 元老格 先輩가 되지 않는가?

同窓會에는 階級과 地位가 會組織의 秩序를 規制하는 것이 아니고, 同門間의 後輩關係만이 있고, 나머지는 같은 뿌리와 기둥에서 자랐다는 兄弟關係뿐이다.

우리들이 스스로의 人生의 方向 選擇을 空軍士官學校로 하함에 自負心을 갖고 矜持를 가져야 하며, 비록 軍門을 떠난後에도 素朴하고 謙遜한 榮華心을 同窓

모든 회원 수평적 同門의 명예 참여정신으로 모두 긍지 가져야

總同窓會 再創立 總會를 갖기에 이르렀음을 큰 幸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

再創立을 앞두고, 空士 初代 校長이신 金貞烈 將軍, 金昌圭·申尙濼 元老 校長님, 그리고 當時 보라매會長 振志良 將軍님 등을 모시고, 우리의 趣旨와 뜻을 말씀드리고, 激勵과 受容의 뜻을 받게 되었음을 이 機會에 밝혀두고자 한다.

또한 實質의인 面에서 空軍總長을 歷任한 金鴻來 同門의 絕對的인 支援下에 기쁨이 마련될 수 있었고, 亦是 10期の 金秉台·林承玉 同門의 努力이 컸음도 言及하여야 할 일이다.

이제와서 總同窓會가 果然 必要한가? 무엇을 하겠으며, 무슨 뜻이 있는가? 同窓會 해보았지만 별 볼일 없지 않은가? 또는 軍服務中과 같은 上下·先後輩 關係의 轉役後까지의 延長을 企圖하겠다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는 狀態에서 虛荒한 發想이다 等등의 意見도 있었음을 記憶한다. 萬若에 同窓會가 設立된다면, 現役과 같은 垂直關係가 아니라, 모든 會員은 期別에 相關없이 水平的 關係에서 運用되어야 한다는 一部 見解도 있었다.

士官學校 出身의 轉役後의 同門의 모임은 그 어떤 利解打算, 財政·物質的 所有等의 問題가

會員이라는 認識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스스로의 選擇과 存在를 後悔하고 自愧心을 갖는다면 얼마나 慨嘆스럽고 부끄러운 일일 것인가!

英語로 아카데미(ACADEMY)라 하는 言語에는 "名譽"라는 뜻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分明한 認識으로서 우리 모두가 家族과 後孫까지도, 그리고 우리를 名譽롭게 길러 준 나라와 겨레가 한결같이 같은 認識을 하여 주도록 處身함이 우리의 道理일 것이다.

近來에 이르러서 위와 같은 士官의 名譽와 矜持를 짓밟는 것같은 騷亂스러운 現象들이 反復的으로 惹起됨을 보면서 實로 羞恥스럽고 慨嘆스러운을 禁할 수 없을 뿐더러, 理由·動機如何를 不問하고 이는 同門의 不名譽라 아니할 수 없다.

어떤 個人의 不道德한 言動이 胎生될 때, 그 집안·成長過程·出身·人性 등이 學論됨을 우리는 알고 있으므로, 士官은 그 생을 마칠 때까지 名譽心과 使命感을 이어가야 할 것이고, 그런 點에서 總同窓會의 눈에 보이지 않은 機能과 役割이 이에 貢獻할 수 있다면 오죽 좋겠는가! 이런 發想에 對하여 間或 冷笑的·否定的

(10면에 계속)

空士 뿌리에 키워 온 가치와 열매 '93년 總同窓會 再創立은 큰 다행

으려고 하였음이 우리의 出發이었다.

꿈과 情熱을 이룩하고 불태움에 있어서 더하고 덜한 各各의 差異는 있었으나, 한마음 한뜻으로 그 세월을 지내온 同門들이다.

空軍士官學校라는 뿌리와 기둥에서 우리들은 해마다 새로운 가지로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왔다. 몇몇 가지는 꺾어지고, 꽃은 떨어지고, 열매는 해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 오면서, 士官學校의 年輪은 蓄積히 굵어지고 뿌리와 기둥은 깊이 든든하게, 자라서 곧 半世紀를 맞이할 것이고, 나라와 겨레가 있는 限 우리의 士官學校는 世紀를 쌓아 올리는 未來로 發展한다는 것은 必然的인 約束이다.

지난 半世紀 동안, 우리 同門들은 6·25 動亂을 겪고 온갖 試鍊

곳이므로 이보다 더 榮耀로운 教育機關이 또 있겠는가?

우리 나라의 三國時代의 武士들, 中世·近世期 西歐國家의 騎士들, 그리고 戰國時代를 거처온 中國·日本等의 東洋國의 戰士들, 또한 오늘날의 所謂 先進國들의 士官學校 教育目標의 最高 德目을 忠誠·使命·名譽로 設定하고 있는, 實로 古今·東西의 理念上의 差異없는 뜻은 새겨야 할 必要가 있다.

우리 나라의 空軍士官學校 創立 半世紀를 앞두고, 士官 第1期 出身이라는 立場에서, 비록 軍門을 떠난지 오래지만, 또한 매우 늦은 感이 있으나, 士官學校 同門의 즐거움' 이어가는 片이 없었음을 느껴, 몇몇 뜻있는 同門들과 길을 自愧心을 품어 왔었다.

'50年代, '60年代에 우리 同窓

(株)三一事務機

- ◎ 사무용 인쇄기기류
· 디지털식 제판인쇄 일체기 (조달청 단가계약품목)
· 복사기 및 천공기
· 페이저 셋터 및 계수기 (COLLATOR) (COUNTRON)
· 접지기 및 절단기 등

- ◎ 대형 도면복사기기류
· DIGITAL식 AO ZOOM
· ANALOGUE식 AO ZOOM (ENGINEERING RECOPY)
· 대형복사물 접지기

代表理事 成 甫 慶 (空士5期)

본사 :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62-1
TEL : (02) 272-1871 FAX : (02) 273-1554
공장 : 경기도 성남시 상대인동 223-22
TEL : (0342) 731-4616 FAX : (0342) 731-4616

研究論文



홍재학(공사 4기) · 단국대학교 수

1. 머리말

항공우주산업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말은 20여년 전인 '70년대 초부터 들어온 말이다. 미국으로부터 군용항공기를 군용으로 지원 받던 시절에는 항공우주산업은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70년대 초 자주국방의 기치아래 각종 무기가 국산화된 시절,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전투기 국산화 연구의 책임자로 인연을 맺어 1978년 9월 28일 국내 개발한 지대지 유도탄의 성공적 발사, 7년간의 무인항공기 개발 등으로 이 분야에 투신하게 되었다. 그 후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소장으로 5년여 동안 우리나라의 항공우주기술 개발에 대한 체험을 기술하고자 한다.

21세기는 항공우주산업 성공시대 인도네시아보다 뒤진 국내기술 정부의 개발정책에 자신감

항공우주산업의 현재시장은 규모는 연간 3,000억불이며 2000년엔 7,200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21세기에는 동아시아는 항공우주산업의 최대 성장 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항공우주산업은 '70년대의 섬유산업, '80년대의 조선·가전제품, '90년대의 자동차 산업에 이어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성장산업이다.

이러한 항공우주산업기술은 첫째,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기술로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이며 둘째로 이 기술은 모든 산업기술의 종합적 시스템 산업으로서 다른 산업에의 기술파급 효과가 크다. 셋째로 부가가치율이 자동차 24.8%, 컴퓨터 36.9%에 비하여 훨씬 큰 44%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렇듯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 기술의 수준은 우리의 경제력·국력에 걸맞지 않게 22~23위권에 머물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송기 8대를 도입한다고 한다. 여러가지 산업기술면에서 우리가 인도네시아보다는 크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크게 뒤처지는 걸림으로 항공기나 우주분야의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승으로 모셔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그러나 문민정부 초기 즉 '93년 3월 12일 본인이 대통령직전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해서 그 후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항공기와 인공위성 개발에 5년간 약 4,000억원을 투자

한국의 항공우주 개발

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이 계획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항공우주기술개발 현황

가. 항공산업기술

국내 항공산업은 '50년대 군용항공기 정비로부터 시작하여 '70년대 중반의 5,000MD 헬리콥터 및 '80년대 초의 제공호 전투기의 면허생산사업 등을 수행한 바 있다. '90년대 들어서는 5조원 규모의 F-16 전투기 및 UH-60 중형 헬리콥터의 면허생산사업이 진행 중이며, B747 등 대형 여객기 부품 생산의 수주 잔고가 12억불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70년대 말에 PL-2 2인승 항공기를 공군수리창에서 몇 가지 설계도만 가지고 제작하여 항공기 개발의 시초를 이루었다. '80년대 초에는 제트엔진을 장착한 무인항공기를 개발하는 노력을 했으며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이러한 항공기 국내 개발 노력은 대학, 산업체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5인승 경비행기 「창공 91호」를 산학연 협동으로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지원을 받아서 개발하게 되었다. 또한 공군의 초동력훈련기를 연구소와 산업체의 노력으로 개발해서 실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이러한 국내 각계의 항공기 개발 시도를 통해서

생산액은 31개 업체가 참여하여 4,400억원이며, 과거 10년간 연평균 27%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최근 10년간 항공우주 산업 발전 추이

Table with 3 columns: 구분 (Category), '82년, '92년, 증가율(%) (Growth Rate %). Rows include 생산액(억원) (Production), 업체수 (Number of companies), and 종업원수(명) (Employees).

3. 육성방안

'93년 3월에 대통령에게 보고 한 내용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육성목표

항공우주산업 선별적으로 집중 육성하여 2000년대에 세계 10위권 진출을 목표로 한다. 생산규모는 '92년 4,400억원을 2001년에 4조원으로 증가시키며 10년간 1조 9,0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설비투자에 10년간 1조 4,000억원을 사용한다.

나. 육성전략

첫째, 민수·군수 겸용 중형항공기, 헬리콥터 그리고 훈련기 및 무인항공기 등 수출 가능성이 있고 중급 기술로 개발 가능한 기종은 '90년대 중에 개발한다. 둘째, 2000년대에는 대형 여객기의 국제공동개발 및 생산에 참여한다. 셋째,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및 우주 기기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

다. 중점사업

육성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중점사업을 실시한다.

(1) 중형항공기 개발 중형항공기는 세계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반면에, 원가 상승으로 인해 선진국이 후발국에 이전하는 기종으로서 1991~2000년의 10년간 6,300대의 수요가 예측되어 680억불의 시장규모가 된다. 국내개발 추진으로 2000년대 세계 중형항공기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대형 여객기의 국제공동개발을 위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은 2,500억불이다.

(2)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최근 국내 이동통신망, 위성이용 위치탐지장치(GPS) 등 이용산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2000년까지 인공위성과 이용 기기의 예상 국내 수요는 76억불에 달하고 있다. 21세기 우주산업의 주역이었다. 저체도 위성기술을 다목적 용도로 개발함으로써 선진 우주산업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개발비용은 1,650억원 중 정부에서 87%(1,426억원)를 부담한다.

라. 추진방안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통신산업부, 국방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과기처로 분산되어 있는 항공우주 관련 사회인력을 종합기획조정할 수 있는 통합기구 즉 가치관 항공우주산업 기획단을 발족시킨다.

둘째,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거한 10개년 항공우주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적 대역 중점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중복투자의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을 통합 조정함으로써 항공우주 전문 연구기관을 집중 육성한다.

넷째,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개발기금을 조성한다(1조 6,000억원).

다섯째, 민간 항공기 수입시 OFF-SET 프로그램을 적용하며, 정부의 G-7 프로젝트에 항공우주 분야를 추가하는 등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4. 맺음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한데 대하여 대통령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이 2000년까지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항공우주산업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새로이 포함시키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1994년부터 중점사업으로 건의했던 중형 항공기 개발과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며 정부는 '94년부터 3년간에 약 2,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5년까지 앞으로 20년간의 우주기술개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계획으로 확정했으며 20년 간 2조 8,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가치관 항공우주산업 기획단의 설치와 연구기관의 통합된 육성 등은 아직 성취되지 못하여 아쉬운 감이 있으나 최근 항공우주연구구의 특활을 추진하여 연내에 실현 될 것으로 보여 다행한 일이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면 200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과 기술이 우리국력에 걸맞는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2면 공사교장에서 이음)

시 육사 8명에 비해 공사는 4명에 불과해서 매년 5명씩 배출되면 10년 뒤엔 50명은 될 것으로 믿고 계획하였던바 현재 45명이나니 목표에는 다소 미달했지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항공공학분야 박사도 8명이 확보되었고 「쌍수리 공원 조성, 「블링장, 「골프, 「해글라이더, 「승마장」 등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었다니 마음이 후속하다.

오늘도 훌륭한 후배들이 선배의 뒤를 이어 하늘에 요동치며 끊임없이 날고 있다. 앞뒤로 열도 돌아보지 않고 번개, 천둥

을 헤치며 지나온 인생. 벌써 60줄에 접어들어 노년이 되었는가 하는 사이 어느덧 어이없이 30~40대로 착각하고 있다. 우리의 브라매의 요람지 「성무대」는 우리가 아가고 가꾸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軍隊, 勝利者만이 생존한다는 適者生存을 위한 부단한 연마로 배우고 익혀서 조국과 하늘에 바치는 참된 사관이 되고 부정과 부패 부조리에 오염되지 않고 저 푸른 하늘처럼 맑게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공군사관학교의 무궁한 發展과 총동창회의 변명을 기원한다.

時 論

은혜를 원수로 갚는 만행

지난 8월 15일 光復 51주년을 맞아 그 역사적 意味를 되새기는 거룩한 날에 한총련의 利敵性 폭력시위는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 고려연방제 統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외치며 시위진압의 점령을 시파이프로 구타하는 등 정부타도의 반국가시위를 9일간이나 하다 결국 연세대를 폐허로 만들고 집안팎지만 곧이어 북괴는 잠수함으로 무장공비 25명을 강릉 앞바다에 침투, 무고한 시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우리 국군도 10명이나 전사했으나 무장공비는 잔당 1명만 남고 전원 사살됐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밟는 주인의 손을 물어뜯는 그 파렴치한 북괴의 만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침을 나라에 봉사한 역전의 용사 전역 장교들은 향군을 중심으로 우국충정을 만천하에 호소했다.

최근 倭總聯의 利敵性 妄動을 직시하면서 우리들이 피담으로 지켜 변명을 이룬 大倭民國 自由民主主義 體制가 親北 左翼勢力의 준동으로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일부 국민들의 무분별한 濫消費 낭비 풍조의 만연으로 우리의 經濟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祖國守護의 대열에 앞장섰던 예비역 장교들은 국가의 기초단위인 家庭의 平和와 安善을 지키고 지속적인 나라 발전과 번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愛國 衷情을 밝힌다.

1. 親北 左翼勢力은

세계사의 흐름을 알고 김일성 주체사상의 망상에서 깨어나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고 국민화합에 동참하라.

남은 교조적 공산주의 폭력 혁명의 환상에서 벗어나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가치를 배로 인식하고 아집과 독선의 폐쇄적 극단주의 폭력 행위를 중단하라.

2. 政府當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한 총체적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법치국가로서의 권위와 기강을 바로 세워라.

특히 화염병과 시파이프로 공권력에 도전하여 국민생환의 안정과 사회질서란 파괴하는 극렬 친북 좌익세력을 박분쇄 원하고 다수 선량한 학생의 면학분위기를 보장하라.

3. 國會와 政黨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구심체로서 친북 좌익세력 제거와 국민안보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 정책수립을 초당적으로 추진하라.

과거 좌경 운동권 출신으로 정치권에 환동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엄격한 사상검증과 사상실형제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켜라.

4. 國民은

오늘의 안보 위기상황이 우리의 안보의식 해이와 대북 경각심 약화, 그리고 친북 좌익세력 활동에 대한 방관적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명심하고 안보태세 강화에 자혜와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의 선진화 없이는 나라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올바른 참정권 행사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국가안보에 투철한 철학과 사명감을 가진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

(編輯室)

바야흐로 우리는 4년간의 土官生徒 생활을 마무리 짓고, 졸업을 한지도 어언 33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紅顏의 어리고 젊은 시절이었던 60년대初, 이곳 星

과 世界를 지배한다"라고 갈파하였습니다.

세바스키의 예언은 中東戰과 걸프戰에서 통쾌하게 立證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과거의 戰爭은

星 武 臺 斷 想



裴 基 俊

(공사 12期)

· 예비역 공군중장
· (주) 삼성물산 고문

땅에서, 바다에서 치루어졌습니다. 그러나 科學은 現代戰의 전쟁터를 땅과 바다에서 하늘로 옮겨 놓았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戰爭은 하늘에서 시작하여 하늘에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공중을 지배하고, 나아가 대륙과 해상을 지배하고자 하늘에 정열을 바쳤으며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갖습니다.

우리는 선배님들에게 인계받았던, 이 자부심과 긍지를 또한 후배 여러분에게 인계하고 그리고 후배 여러분은 더 크고 알찬 자부심과 긍지를 가꾸어 나가기를 강조하며, 그 책임도 잊지 않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배에게도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3년만에 星武臺 앞에서, 새벽의 찬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지는 우렁찬 군가와 지축을 흔들며 함성이 星武臺에 메아리 되어 다시 돌아오듯이 空士의 同窓인 우리는 星武臺에서 태어나 결국 星武臺로 다시 돌아오는 祖國 하늘의 영원한 햇불인 星武人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낳고 키워준 母校 空軍士官學校에게 무한한 感謝와 최대의 敬意를 표합니다.

星武臺여!

星武人이여!

오래 오래 그 榮光 있으라!

武臺에서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祖國과 하늘에 바친다"라는 높은 가르침을 깨우치며, 12期生이라는 보라매의 무리가 되어 힘차게 離陸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祖國의 平和와 自由를 지키기 위해 높고 넓은 창공에서, 광활한 비행장의 격납고에서, 영하의 추운 Site에서, 혹은 북북히 작전을 지원해 주는 또 다른 基地에서, 自身을 너무 많이 희생하며 하늘의 파수꾼이 되어 祖國의 굳건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수많은 세월 속에서, 무수히 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任務와 職分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33년 전 숨쉬고 뛰놀던 星武臺 람에서, 땅과 눈물로써 갈고 닦은 치밀한 知性, 대담한 野性, 불굴의 勇氣, 강인한 體力의 값비싼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일찍이 미국 航空戰略 思想家 '세바스키'는 "세계는 大陸과 空中의 싸움이며, 空中을 지배하는 者는 大陸을 지배하고, 大陸을 지배하는 者는 海

株式會社 新 岩 商 社

— 未來의 經營, 信用의 企業 —

- ① 동양시멘트(株)
- ② 동양물탈시멘트(株)
- ③ 한국동양고로시멘트 제조(株)
- ④ (株)유니온(백시멘트)
- ⑤ 한국고로벌크시멘트
- ⑥ 동부화학석고보드

諸社의 製品을 全國에 補給

代表理事 郭 石 泰 (空士 7期)

주소 :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642
 TEL : (051) 311-6636 / 8
 FAX : (051) 326-3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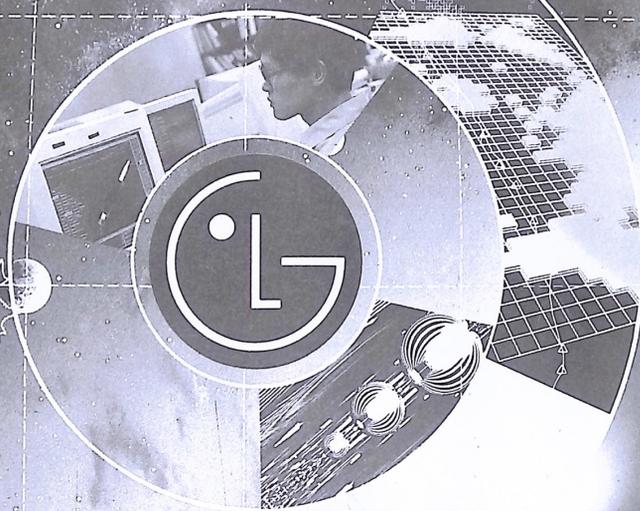
발

축

전



첨단기술로 인류에
공헌하는 기업



이미 세계가 인정한 LG정밀의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력의 세계화 없이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20년동안 오직 초정밀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에
힘써온 LG정밀.
이미 세계가 인정한 LG정밀의 정상 기술력이
인류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LG정밀이 이루어가는 테크노피아 -
그것은 바로 기술을 통한 인간사랑의 실현에 있습니다.



研究論文

국방과학기술의 현대화 방향



안 병 하(공사 13기)

- 공학박사
- 광주과학기술원연구소장

1. 서 언

국방과학기술 현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현 상황을 보면,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사회전반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과학기술경쟁의 신안보시대 전투요원도 과학기술도 정예화

가운데 군사중심의 안보체제에서 경제 및 기술경쟁체제로의 전환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외형상 경제, 과학기술의 세계화 추세로 보이지만, 내부상황을 보면, 선진국의 기술패권주의가 확산되고 있어서 기술경쟁을 넘어 기술전쟁화의 모습으로까지 비추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선진국 대열 진입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현재 경제권역(Threshold)에 위치한 우리로서는 선진대열 진입에 막대한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이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형편이다. 따라서, 국가생존전략차원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자원인공을 우수과학기술로 극복, 세계 경쟁체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반면, 국방여건을 살펴보면, 냉전구조 붕괴와 새로운 안보질서 태동으로 한반도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군비감축시대를 맞아 평화무드에 젖어 있다. 그러나 안보상황을 할당 강·은 사이클로 변화되므로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전반에 대비,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방과학기술은 불확실한 전략적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담보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재원, 기반 기술 등이 절대빈곤한 우리 여건에서 군사전략 목표와 개념의 구현을 위한 기술 집약적 군사력 건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우리의 시대적 과업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군 과학화로 자주국방 지향

과학기술은 자연의 사물과 이치를 응용하여 인간 생활에 유용한 지식 또는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절차로서, 현상에 내재된 질서에 관한 이해가 과학의 산물이라면 기술은 인간의 현상 지배 능력 향상을 위해 설계된 목적물이다. 우리 인류는 기술개발 및 혁신을 통하여 문명의 발전을 도모해 왔다. 국방과 과학기술은 서로 가치체계가 상이하지만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합수관계로서, 국방 목표는 군사력 운용에 의해서 달성되고, 군사력은 과학기술의 응용을 통해 유지·발전되기 때문이다.

즉 전쟁기술(전략, 전술, 운용)은 과학적 사고에 의해, 전쟁도구(무기체계)는 과학 기술 응용에 의해, 전투요원(병사)은 과학 기술의 이해에 의해 발전·정예화 된다.

군사력 = (전략/전술 운용기술, 무기체계, 전투요원)

= f(국방과학기술)

이런 관점에서, 총력전 시대의 국방체계 발전 요체는 군사기획가의 과학기술 이해 및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자가 국방에 다수 참여하여 업적은 쌓을 수 있는 내외부 여건을 성숙시키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군의 실상을 보면, 병력이 학력 상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자원(평균 대학 재학 학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방관리체계면에서도 선진화된 기반(Infrastructure)을 보유하고 있지만, 업무행태면에서는 아직도 모방과 관행의 답습에 익숙해 있으며, 군내부 구조면에서도 독자적 현대전 수행능력에는 미흡하다. 또한, 관리업무는 상당히 선진화 되었으나 기능·계층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정보의 쌍방향 흐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병역의 시대를 맞아 군에 대한 내외부 비판의 실체를 인식하고, 이를 새로운 기풍과 발상의 전환을 모색할 기회로 삼아, 과학기술을 매체로 창의성과 합리성을 발휘하여 사고의 질(Quality of Thinking)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군 내외부 모두 전문 과학기술집단의 지원 및 수용체제를 확립해서 국방체계 내부변환(Transformation) 기능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군 발전개념을 함시 공급할 수 있는 개방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길이다.

3. 군 과학화 개념 및 접근방향

국방과학기술 발전목표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전술적 요구에 과학 기술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화한다면 통일 이전 대북한 군사도구 억제와 통일 이후 주변국 및 제3국의 잠재 군사위협에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 및 유지에 필요한 선진 국방과학기술의 확보이다. 특히,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점차 균형자적 역할 발휘가 가능한 질 위주의 군사력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 이내에 국방과학기술 수준면에서 세계 선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접근 방향으로 부분접근 방식을 탈피하고, 군 전체가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기술개발/기술혁신 주도의 국방운영체제를 정립해야 한다. 또한 군사력 건설에 대한 군(육·해·공)의 기본자세에도 전환이 필요한데 국내 과학 기술력의 고려라는 성병위주의 무기체계 소모제기를 지양하고 군의 위험부담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체제를 정립해야 한다. 예로서, 국산 무기 성능이 부족할 경우, 운용교리 발전, 정신전력 함양 등으로 이를 극복하는 자제가 요구된다. 또한, 전력화시기 지연, 기회비용 상승 등에 대한 긍정적, 보완적 대응 자제가 필요하다. 특히, "기술전쟁" 시대에 과학기술 우열이 국가 민족 미래의 생존에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2000년 "질위주의 신군사력" 건설을 위해 첨단기술 확보가 선결과제를 깨달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핵심선도 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과 연계, 보완하여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민군 겸용기술의 개발과 이러한 기술들의 응용확산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도입과 기술자립을 조화시키는 중간진입방법(Mid-Entry Method)을 채택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는 기초기술부터 출발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기회비용 소모가 불가피하므로 무기체계의 해외구매 및 공동개발시

절충교역을 통하여 핵심요소기술 획득을 강구하고, 접근이 차단될 경우 불가피하게 관련 기초 기술도입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실용화 지향의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한편, 미래전쟁 제약을 위하여 작전운용원의 과학기술 응용능력 향상과 여건 조성 필요한다. 이스라엘이 10월 전쟁 중,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작전을 중지하고 기술적 해결대안을 모색한 후 재개하여 승리를 쟁취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기술의 탐색, 동원,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첨단무기 확보는 전력증강의 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첨단무기체계 확보위주의 전력증강에서 탈피하여 전쟁도구(유형전력) 발전과 전쟁수행기술(운용전력) 발전의 균형, 조화를 통한 전력증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창의적인 전력증강을 위하여, 국방체계 하부구조상의 다양한 기간 교류확대와 상호협력을 유도하여, 전투 발전개념, 전투모의 방법론 등의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집단 강화도 요구된다.

현재, 소모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성과가 저조해 해외 기술도입 생산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도입기술 검증 및 관리소홀로 해외 직구해의 변질된 형태로 전략한 감이 있으며, 핵심요소기술 없이 시스템 위주 개발로 해외 의존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경제성, 국가기술 기반, 한반도 미래전장 적응성 등을 고려한 창의적인 소모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국내개발에 필요한 핵심요소 기술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기술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핵심요소 기술을 선정하여 집중개발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국방핵심요소기술은 센서, 광학 레이저 응용, 신재료 등 10여개 분야로 크게 구분되고, 각 분야별 요소기술은 로보틱스, 통신소자기술, 에너지 물질 등 60~80개의 핵심기술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산·학·연 연구개발 추진시 G7 프로젝트와 국방핵심요소기술 개발사업을 연계추진하고, 국방부와 과기처가 협의하여 상호 공동활용 가능성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여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국내 기술 도입 생산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기술 획득 방안을 강화하고 기술 도입생산을 군사·민수 겸용기술 획득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국방예산 감소 추세에서 추가획득 비용을 군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이므로 범정부 차원에서의 재원 분담체제 정립이 필요하다.

4. 결 언

군사 중심의 안보체제에서 기술 경쟁체

과학기술창의는 자주국방 실현 21세기 질위주의 군사력시대

제로 전환하는 시대를 맞아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지름길(王道)은 없다. 모든 국방 활동이 집결되어 상호승수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구조적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선진국방과학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연구개발 노력을 통합, 조정하고 또한 군사력 운용 현장의 창의에 기반을 둔 고수 과학기술의 개발과 응용능력의 확대도 요구되고 있다. 이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독자적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핵심요소기술의 국내 개발체제 정립을 제고하고자 한다.

健康

氣와 健康



金方宇

- 단학선진지도위원
- 통일교육전문위원

1. 머리말

재산을 잃으면 적게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산업사회 결과로 공기와 물이 오염되고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건강을 해치고 있다.

건강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건강의 원인이 되는 氣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다.

氣가 勝하면 運이 찾아오고 氣가 허약하면 運이 빠져나가고 氣가 끊어지면 風이 오며 氣가 막히면 죽는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터득한 眞理이다.

이 글이 여러분도 미비하지만 空土同門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氣에 대한 問題를 提議함으로써 건강법을 터득하고 나아가서 氣에 대한 神祕를 發露해서 人類의 健康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2. 氣의 本質

宇宙萬物の 根源은 氣이다. 生命, 物質, 마음의 三界는 모두 氣의 作用이며 그것들은 독립적으로 作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調和되고 相乘하면서 存在한다.

낮과 밤 春夏秋冬의 순환, 이 모든 것이 氣의 活動에 의한 것이며 우리의 人體도 氣의 취합물이며 生命의 機能도 氣의 作用이며 精神 機能조차 氣의 作用이다. 우리 몸에서 氣가 떠난다는 것은 生命이 喪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氣가 부족하거나 均衡이 무너지거나 氣의 質的變動이 생기면 病이 되는 것이다. 氣는 이 宇宙空間에 가득차 있으며 가득차 있는 氣가 움직이고 확산을 形성하면서 宇宙의 萬物이 形成되고 또 변화하며 소멸되는 것이다. 이것이 氣의 本質이다.

3. 先天的인 氣와 後天的인 氣

사람의 身體속에는 胎內로부터 받은 先天的인 氣가 있다. 이를 眞元之氣 또는 本身眞氣라 부르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生命의 始發이며 日常生活 속에서 일어나는 活動의 原動力이 된다.

先天的인 氣는 사용함에 따라 계속 消盡된다. 무릇 生命活動이라 함은 中斷없는 呼吸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呼吸처럼 氣의 生成·消盡 또한 더욱더 깊은 중

요성이 있으므로 氣의 補充없이 이루어지는 無心한 生命活動은 氣의 消盡만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氣가 消盡한다 함은 바로 生命活動이 弱화된다 뜻이다. 氣가 消盡되면 身體는 虛弱해지고 魂, 意志, 勇氣 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平素 氣를 補充하고 유지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補充되는 氣가 바로 後天的인 氣이다. 後天的인 氣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크게 地氣나 天氣와 地氣로 구분할 수 있다. 天氣는 空氣를 말하며 地氣는 地氣를 말한다. 天氣는 呼吸을 통해서 體內에 吸入되고 地氣는 飲食, 즉 飲食物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自然의 氣源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健康을 維持하려면 그리고 長壽하기 위해서는 生命體의 energy 原因의 氣體를 養고 平素 氣에 대한 관심을 갖고 氣를 維持 管理하려는 노력을 하여야만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

4. 氣의 淸濁 관계

氣는 質的으로 맑은 것과 濁한 것이 있는데 맑은 氣에는 生命力을 유지하는 energy(氣)가 포함되어 있고 탁한 것에는 生命力을 파괴하는 energy(氣)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體內에는 맑은 氣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기능은 精氣神의 合一體에 의해서 作用되는 것이며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調和되는 補充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氣를 맑게 하려면, 첫째 마음관리, 둘째 氣 관리, 셋째 몸관리가 필요하다.

제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매일 같이 잘 먹고 체력단련을 끊임없이 했다해도 고도의 stress와 짜증과 분노에 시달린 사람은 그 정도에 따라서는 2~3시간 내에 胃腸의 말초신경 접착이 붙게 열을 받아 神經性 胃腸을 나타낸다.

이것은 잘 먹는 것과 체력단련 못지 않게 마음 관리가 중요함을 입증하는 증상이다. 氣 管理 역시 마음 관리를 잘 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주거하고 있는 位置條件과 環境條件 그리고 食餌療法이 중요하다.

元氣의 生産 과정은 陽氣와 陰氣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데 陽氣는 肺를 통해 心臟으로 들어가게 되고 心臟은 空氣 속의 酸素를 代謝환관으로 보낸다.

이때 空氣 속에 있는 陽氣는 丹田으로 수송되며 수송된 陽氣(天氣)는 먹어서 얻은 陰氣(地氣)와 결합하여 元氣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맑은 空氣를 마셔야 하고 좋은 氣를 가지고 있는 食品을 먹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또한 氣는 成功과 失敗의 갈림길에서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作用하게 된다.

즉, 마음에서 "된다"고 생각하면 成功의인 씨앗(無因子)이 形成되어 마음먹은 대로 創造되며 마음에서 "안된다"고 생각하면 파괴적인 씨앗(無因子)이 形成되어 마음먹은 대로 滅亡하게 되는 것

이다.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도 肯定的인 생활태도는 체내의 면역체계를 증가시키고 否定的인 생활태도는 체내의 면역체계를 감소시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곧 교란된 마음의 상태는 체내에서 濁한 氣를 증가시키고 마음의 상태가 淸정되었을 경우에는 체내에 맑은 氣가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내에 濁한 氣가 많을수록 健康의 상태는 나빠지고 각종 질병이 나타나며 體內에 맑은 氣가 많으면 많을수록 健康하고 長壽하는데 필요한 energy가 증가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결론적으로 氣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精氣神의 同時管理가 이루어져야만 健康이라고 하는 實體와 一致시킬 수 있게 된다.

5. 氣의 屬性

愆할 때는 올라가고(上氣症) 기쁠 때는 늘어서며 슬플 때는 사라지고 두려울 때는 내려가며 놀랄 때는 흐트러진다. 더울 때는 새나가고 추울 때는 움츠리고 일할 때는 소모되고 생각할 때는 멎는다고 한다

그리고 百病이 氣에 의해서 발생한다. 곧 氣는 生命의 元氣이기 때문에 氣가 막히면 죽는다.

6. 氣 管理의 要訣

言語를 적게 하여 內氣를 기르고, 性慾을 경계하여 精氣를 기르고, 滋味(맛 있는 음식)를 많이 먹지 않아 血氣를 기르며 노여움을 삼가하여 肝氣를 기르고 飲食을 가려먹어 胃氣를 기르며 생각을 적게하여 心氣를 기르는 것이 心身 健康 管理의 基本이다.

7. 氣의 應用 事例

氣功을 현재로서는 醫療氣功次元에서 應用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實驗에서 各種 農作物의 生産量을 크게 提高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醱酵工業分野에서 重大한 成功을 얻었으며 生命科學, 生物工業 方面에서도 맑은 應用展望을 보여주고 있다.

現在 氣功方法을 應用한 抗生物 各種 菌種 生産 實驗結果는 最下 10%, 最高 33%의 増産 현상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氣功은 醫學部門의 테두리를 벗어나 工業, 農業 方面의 實驗結果는 경이

적인 것으로 앞으로 技術革命 심지어는 科學革命을 일으킬 可能性이 있다고 믿는다.

사람이 섭취하는 飲食物에서도 氣價와 熱價와 영양가가 병존하는데 氣價가 높은 飲食物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클 것이며 익히지 않은 生食을 권하는 까닭도 바로 氣價가 높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8. 결 론

현재 地球村 50億 人類가 당면해 있는 심각한 危機는 自然과 環境의 破壞로 인한 生命의 威脅이다. 人口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產粟과 技術이 高度로 발달하였고 그와 함께 公害로 인한 自然의 오염과 파괴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自然의 機能이 마비되고 있다. 기후와 계절, 생태계의 유기적 연관성 등 大自然이 가지고 있는 生命의 自動調節機能이 점차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自然의 氣가 變質되고 물과 공기와 흙과 햇빛의 波長이 흐트러져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人間이 할 수 있는 唯一한 길은 生命自體를 再創造할 수 있는 宇宙의 氣를 나의 氣로 받아 들이는 蓄氣充實의 생활이어야 할 것이다. 未來는 분명히 氣 科學이 發達하고 氣 産業이 번창한 나라가 당연히 세계의 주도국이 되면서 現在의 世界 秩序가 再編될 것으로 믿고 있다.

(5면 기사에서 이음)

或은 無關心한 反應도 豫測될 수도 있을지언정, 이는 愁曲한 바람인 것이다.

우리 모두의 素朴한 奔持와 兄弟愛를 꺼져버리고 없어지려고 하는, 世俗的 價値가 없는 所重한 것에 對한 아가는 마음 같은 것을, 조용히 그러나 즐기차게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總同窓會의 成文化되지 않은 目標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사려져가는 先賢들이 締結한 이어져 올 後輩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라고 믿어 마지 않는다.

나라와 겨레가,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마련한 空軍士官學校에 入校하여 그 모든 課程을 마치고 軍에서의 所任을 나름대로 完遂하여 士官學校 同門의 一員으로 스스로를 參與精神으로 設定·存在하게 하고 있음에 關하여 자랑스럽고 榮耀로운 일로 自負하면서, 우리 士官學校와 總同窓會의 發展과 모든 同門의 健勝을 祈願하면서 "會"에 關한 小考로 한다.

編輯後記와 寄稿文案內

공간간 바쁘신 가운데도 귀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동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광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분께 고마운 마음 전해 올립니다.

인생은 만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처럼 공사출신 星武人의 因緣은 끊을 수 없는 정분이기애 그동안 人生 歷程을 체험하면서 얻은 진솔한 이야기들을 흔하지만 가슴에 간직하지 마시고 동문들간에 나누는 것도 보람 중에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기간에 만든 회보와 배지를 사장해 놓고 있는 것이 있는 듯한데 만의 하나 그런 우를 행했다면 차후는 만드는 사람의 성의를 생각하는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1. 期生命動靜 또는 消息은 200x x 5 枚 內外
2. 自由 寄稿時 主題는 自由 枚數 200x x 20 枚 內外
3.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 7동 1178(150-057)

TEL : (02) 845-1090 FAX : (02) 845-1091

編輯發行人 드림

酒頌

삶의 지혜

멍청하지 말고 오래 살시다

술의 역사는 4천년이 넘지만 나라마다 술을 빚는 방법이 상이하여 그 맛과 향이 다르고 도수도 높고 낮아 종류가 엄청나다. 그래서 그 나라 민족성에 따라 酒法도 틀리다.

그러나 한결같이 社會生活에 없어서는 안되는 음식으로 발전되어왔다. 어떠한 모임이나 파티에는 꼭 술이 등장하고 개개인의 생활에도 술은 활력소로 쓰인다.

만일 人間界 中에 술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할까. 종교 중에서 기독교와 불교는 술을 금하고 있다. 술을 과하게 먹으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며 경건한 종교 의식 중에 주태를 우려해서 일 것이다.

요즘에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許稔교수는 적당히 먹는 술은 약이 되어 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만사가 그러하듯 지나치면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술뿐만이 아니다. 그래서 술도 잘마시면 百藥之長이지만 잘못 마시면 敗家亡身의 근원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술을 마시는데도 哲學을 갖고 마셔야 한다.

無酒天地에 小英雄이요 有酒江山에 多豪傑이라니 술없는 江山에 豪傑이 있다드나. 티올티오폴트가 먹던 파란술은 판네타오의 죽으려던 술, 몰스데니 왕에게 바치려다가 이슬디와가 마시던 술은 사람의 蠱酒, 클레오파트라가 시저에게 따른 빨간 술은 誘惑의 술, 成春香이 李道令에게 따른 술은 百年佳約 盟誓酒, 陽明王의 山岳酒 不老酒라니 赤壁江의 蘇東波가 술없이 배를 탔으며 漢江 노리배의 술없는 船遊가 있다드나. 西山이나 碧溪水도 10年만 흐르면 變하는 거요, 洛東江 七百里가 언제 한 줄기드나 달고 그름이 되면 이즈러지고 누에도 고치가 되면 날짐승이 되나니 갈대와 같은 女子의 마을 어찌 변치 않으리. 萬若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술, 술뿐이다. 이 술은 어느때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마시던 꼭 취해 준다고 約束해 주는 술. 벗들이어 술에 취하고 사랑에 취하여 眞理와 理想에 취하여 하루에 千年을 사는 술기를 가져보자.

中國의 詩人 李太白은 獨酌이라는 詩로 술을 찬미했다.

天若不愛酒 酒星不在天
地若不愛酒 地應無酒泉
天地既愛酒 愛酒不愧天
已聞清比聖 復道濁如賢
何必求神仙 三杯通大道
一斗合自然 但得醉中趣
勿爲醒者傳

만약 하늘이 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늘에는 주성이 없었을 것이고 만약 땅이 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땅에는 음담 술샘이 없었을 것이다. 이미 하늘과 땅이 술을 사랑했으니 술을 사랑함이 하늘을 우려러 부끄럼이 없다 들건데 맑은 술은 성인에 비유했고 또 탁한 술은 현인과 같다 했으니 석잔 술로 큰 도를 통하고 한말 술로 자연과 합할 것이다.

天中耕一郎 作(94歲)
박 용 태 번역(70歲)

1.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고 그리고 군소리람 하지도 말고 물거름람 가르쳐 주기는 하나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오.
2. 이기려 하지 말고 저 주시구려. 어차피 신세칠 이 몸인 것을 한결을 물려서서 양보하는 것 언제나 감사함을 잊지말 말고
3. 돈-돈-돈의 욕심 버리지구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그 사람은 참으로 좋은 분이였다" 살아있는 동안은 많이 뿌려서
4. 그렇지만 그것은 걸 이야기 정말로는 돈을 놓치지 말고 남들에게 구두쇠라 틀을지언정 모두가 받들어 모셔 준다는 것
5. 옛날 일들일랑 모두 다 잊고 잘난 체 자랑일랑 하지말 마소. 아무리 버티려고 애를 써봐도 "그대는 훌륭해, 나는 틀렸어"
6. 내 자녀 내 손자, 그리고 이웃 누구에게서든지 우러러 보는 멍청하면 안되오. 그렇기 위해 무엇인가 한가지의 취미도 가져

미운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저그저 남의 일에 칭찬만 하소. 알고도 모르는 척 어수룩 하소.

젊은이들에게는 꽃 안겨 주고 원만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오. 언제나 어디서나 "고마워요!"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거라오.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 산더미 같은 덕을 쌓으시구려.

죽을 때까지 꼭 잡아야 하오. 돈이 있음으로써 나를 돌보고 우리끼리 말이지만 사실이오.

우리들의 시대는 다 지나갔으니 이 몸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소. 그러한 마음으로 지내시구려.

좋은 늙음이로 살으시구려. 두뇌도 세탁하고 멋진 삶으로 아무쪼록 오래오래 살으시구려.

다만 취한 마음에서 얻은 것이니 술 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을 전하지 말라.

또 어느 愛酒家는 다음과 같은 시조를 읊었다

一杯 親親酒
二杯 濯濁酒
三杯 道通酒
四杯 忘我酒

한잔술은 女子의 속옷을 벗어 줄 정도의 다정한 술이니 안마실 수 없고 두잔술은 마음의 때를 씻는 술이니 안마실 수 없으며 석잔술은 도를 닦는 술이니 어찌 안마시겠느냐 그래서 술석잔은 약주라 하여 몸에 좋다는 것이다. 그 이상의 잔은 나를 잊게 하는 술이니 자기 자랑껏 마시는 것이 長壽의 酒道요 敗家亡身의 길을 피하는 지혜인 것이다. <編輯室>

野産業 株式會社

사출 성형 플라스틱 제품 생산

☒ 금형설계 제작 ☒ 실크 인쇄 ☒ 조립 ☒ 일괄공정 완비

- ISO 9002, 100PPM 인증업체 -

代表理事 金 道 植

주소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39-3
TEL : (032) 815-3500
FAX : (032) 815-3509

發

祝

展

항공업계 세계 최초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그녀의 이름은 아시아나

명화의 감동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그릴 수는 있어요.

「그림 그리면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평화의 감동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그릴 수는 있어요.
좋은 그림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제 마음에 담고 싶어요.」

마음을 아름답게 그려가는 그녀
그녀의 이름은 아시아나



많은 행복에 만족을
아시아나항공

문의 및 예약 • 서울 : (02)774-4000 • 자동예약서비스(ARS) : (02)774-6688 • 인터넷 : <http://www.asiana.co.kr>